

광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4>
 since 1952

〈1부〉 농업, 포기할 수 없다

③ 농업의 다원적 기능



경관농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선학동의 유채밭 전경. 득량만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선학동에는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메밀꽃이 장관을 이룬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환경 살리고 지친마음 치유...年 28조3천억 가치

우리 농업이 FTA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고령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식량안보를 책임지는데서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생태계 보존의 보루로서 홍수를 예방하고 도시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데, 당초에는 식량안보를 강조하기 위한 논리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측면에서 점점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8조3700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이는 농업GDP의 1.4배, 제배업GDP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농업의 경제외적인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환경 및 생태계 보존 기능이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2조8891억원으로 추산된다. 논과 밭은 빗물을 받아들이고 지하수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식수를 제공하거나 하천의 유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연간 전국의 수돗물 사용량보다 많은 60억에 이른다. 경사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양유실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0.4cm 두께의 흙이 유실되고 있다. 1억8천만톤으로 5t트럭으로 계산하면 3600만대에 분배 이르고 한 줄로 세우면 서울~부산을 200번 왕복하는 거리다. 토양이 유실되면 토양에 함유돼 있는 비료 성분이 함께 사라져 땅이 척박해지고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논은 밭에서 유실되는 흙을 받는 역할을 한다.

농업은 호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산 유기물 등을 정화하는 '천연 정화조'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이 농경지에 머무는 사이 각종 영양분이 농작물에 흡수되거나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연간 7억t의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작물은 광합성 작물을 통해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

논밭, 토양 유실 막고 정화작용

논둑, 댐 역할해 홍수예방 효과

지역 축제·토속음식 등 통해

도시민에 포괄적인 만족감 줘

출하는 대기정화 효과가 크다. 농작물은 연간 2160만t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560만t의 산소를 방출해 5조8889억원의 화폐가치를 창출한다.

두번째로는 어메니티(Amenity) 기능이다. 어메니티는 '쾌적함' '기분 좋음'을 뜻하는 단어로 농촌이 도시인들에게 주는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공간 제공, 어린이 정서함양 기능을 말한다. 농촌이 가진 자연환경과 특산물, 토속음식, 축제·문화 등을 통해 도시인들에게 주는 포괄적인 만족감과 휴식공간 효과가 모두 어메니티 기능에 속한다.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9조141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경관유지 효과 4조316억원을 비롯해 정서함양 효과 2조1514억원, 휴양 및 여가제공 효과1조2218억원 등이다.

홍수예방 효과도 탁월하다. 같은 양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도 농촌보다는 도시의 피해가 큰 것이 논·밭의 홍수조절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논에는 뚝이 있어 빗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한다. 홍수시 논 1ha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은 2378t으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으로 치면 27억7000t의 물 저장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저수량이 1억5000만t인 춘천댐의 18.5배, 8480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 (단위: 억원)

농촌활력 제고	8,165
지역균형 발전	16,676
환경및 생태계 보존	12,889
지하수함양	41,572
수질정화	21,910
대기정화	55,889
토양 유실 경감	9,520
농촌경관	40,316
정서함양	21,514
전통문화	16,093
휴양및 여가	12,218
재해경감	22,814
홍수예방	22,814
식량안보	17,084
총계(A)	284,771
농업GDP(B)	205,848
재배업GDP(C)	168,197
A/B(배)	1.37
A/C(배)	1.69

■ 경관농업이 돈다

장흥 선학동 유채·곡성 삼기면 목화

관광수입·농가 소득 증대 '두토끼'

장흥 선학동마을의 유채꽃, 곡성 삼기면의 목화밭, 고향 청보리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답은 해마다 때가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라는 점이다. 벼나 보리 대신 심은 대체작물인 유채와 목화가 농가소득은 물론 농촌에 멋진 경관을 제공해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경관농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다.

인관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의 무대인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선학동에는 봄에는 유채가, 가을이면 메밀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13.2ha에서 생산되는 유채로 바이오디젤 연료까지 추출하고 있다.

곡성군 곽면 삼기면 인근 6ha 논에는 9월이면 목화꽃이 핀다. 하얀 목화꽃이 빛어내는 경치를 보기위해 해마다 20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국내 재래종 목화를 유기농으로 재배한뒤 솜으로 월링 면제품을 만들다보다 수입산보다 4.5배나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전남이 경관농업의 1번지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정부는 농작물로 밭거리를 연출해 농촌 가치를 올리기 위해 2005년부터 경관농업을 실시하고 있다. 유채·메밀·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32종으로 정부는 이들 경관작물을 심는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ha당 최대 170만원에 이르는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5년만에 재배면적으로는 74.5배, 직불금 지원액은 55.6배나 늘어났다.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손영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1차산업인 농업에 3차산업인 관광을 접목시킨 것이 경관농업으로 관광수입과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면서 "경관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만을 담고 있는 장성댐의 31.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식량안보로서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전쟁이나 국제 곡물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량안보의 기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농업의 식량안보적 가치는 1조7000억원으로 다른 가치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다른 가치를 능가한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식량 생산만이 아니라 환경보존, 정서함양 등 다원적 기능 때문이다"며 "농업도 이제 '최대 생산'을 추구하던 것에서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최적 생산'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Le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광주 수완점
062-371-0011

광주 신세계점
062-360-1981

광주 상무점
OPEN 예정

쿠스쿠스: 광주 수완점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